

무용 음악 <볼레로>의 원무



내 인생의 절정을 향한 도약

밀정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무용 음악



볼레로가 사용된 디지몬 어드벤처 극장판의 한 장면



デジタル世界から

驚異のモンスター来襲。



©2000 東映アニメーション株式会社
製作・原案：東映アニメーション株式会社
企画・監修：山崎 隆
脚本・監督：山崎 隆
キャラクターデザイン：山崎 隆
作画監督：山下 高樹 製作：東映アニメーション株式会社
総監：山崎 隆
制作：東映アニメーション株式会社
制作協力：八洲テレビジョン放送局
コロモン/高橋 孝
©2000 東映アニメーション株式会社

デジタル
モンスター

NEW
SERIES

デジタルモンスター

DIGIMON ADVEN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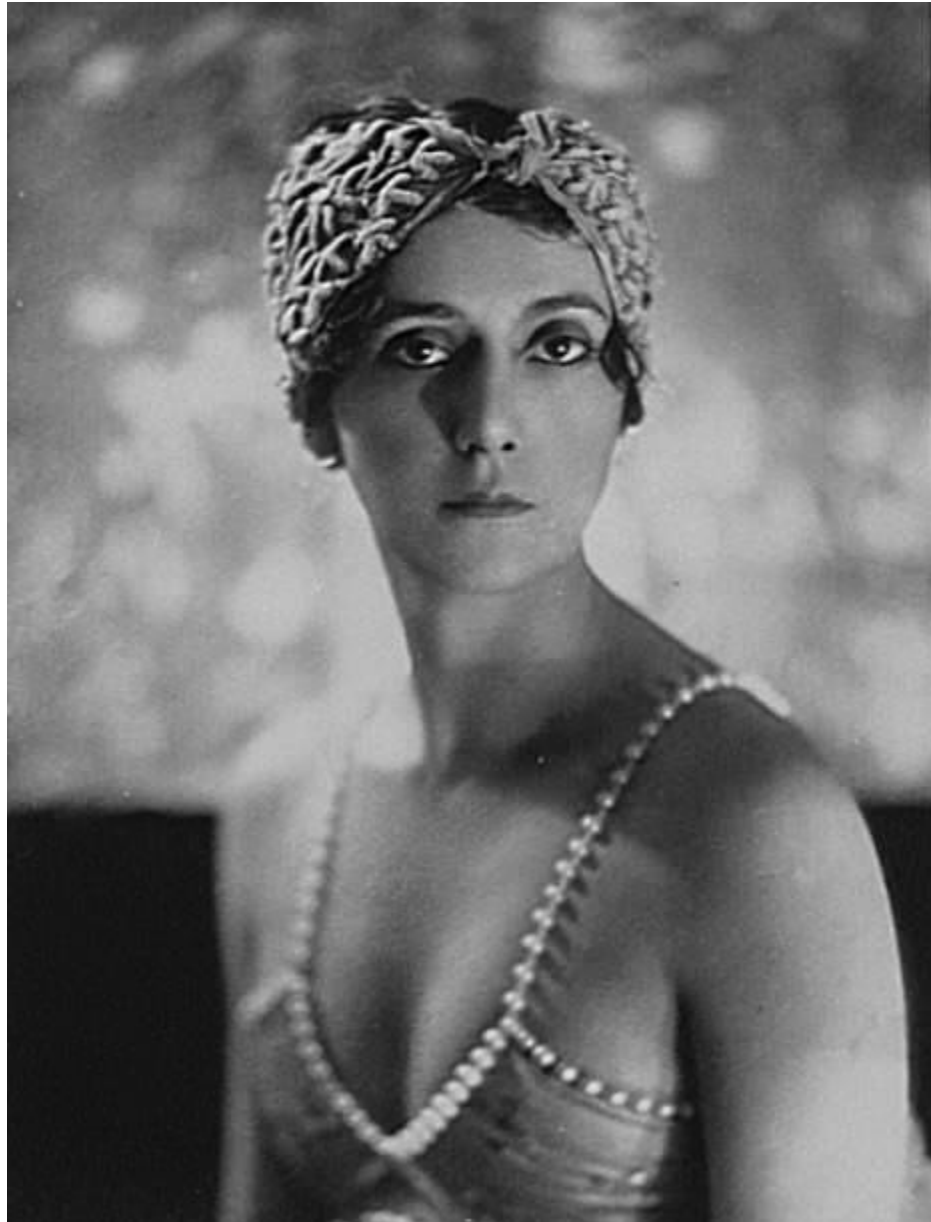
구로사와 아키라, <라쇼몽> (1950)



모리스 라벨(1875-1937)



이다 루빈스타인



발렌틴 세로프, 「이다 루빈슈타인」



볼레로의 고전성과 현대성

- 러시아 무용수 이다 루빈스타인을 위한 발레곡
- 1928년 파리 오페라 초연 기록: 스페인의 한 여관, 나이에도 흑적인 이다, 고야 그림에 나올 법한 집시 의상으로 테이블을 오르내리며 관객 매혹
- 이후 모리스 베자르, 롤랑 프티 등 20세기의 세계적 안무가들이 각각 자신의 볼레로 창작, 21세기 한국 안성수, 정영두의 안무.
브로니스와바 니진스카가 안무한 초연 때의 작품은 판당고, 클라시코 에스파뇰clasicoespañol 등 스페인 춤의 리듬 강조
- 모리스 베자르는 볼레로 음악의 리듬, 선율 뿐 아니라 관현악적 구성과 무용작품의 구성을 일치시킴. 베자르의 작품은 음악과 무용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음악의 재현 작업
- 롤랑 프티는 디테일한 리듬과 이국적 선율의 분위기를 남녀 2인무로 구성하였다.

에로티즘의 절정에 이르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 모든 음악 형식이 지향하는 '다양성과 통일성의 조화'
- 반복되는 주제와 리듬의 강력한 통일성
- 점층적으로 쌓아올리면서 변화를 꾀한 악기의 다양성이다.
- 아라비아 무희, 혹은 하렘 여인의 춤을 보는 듯한 에로틱한 분위기와 상호 상승작용을 일으켜 수많은 안무가 유혹
- 아라비아풍은 중세 수백 년 동안 스페인을 지배한 사라센의 영향

<볼레로>의 관현악적 색채감과 이 국적 이미지

국내에서는 안성수 안무의 《볼레로》가 느린 움직임 속에서 점차적으로 확대되는 다이내믹을 표현함으로써 라벨의 작곡 의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2018년 국립현대무용단 김용걸, 김보람, 김설진이 각각 삼인삼색의 '볼레로' 공연.

이렇게 끊임없이 창조의 원천이 되어 고전성과 현대성의 가치 높이 평가

국립현대무용단



圓舞 볼레로



볼레로 선율과 리듬

1. 플루트 독주 (첫 번째 선율)
2. 클라리넷 독주 (첫 번째 선율)
3. 바순 독주 (두 번째 선율)
4. 피콜로클라리넷 독주 (두 번째 선율)
5. 오보에 다모레 독주 (첫 번째 선율)
6. 플루트와 약음기 끼운 트럼펫 (첫 번째 선율)
7. 테너색소폰 독주 (두 번째 선율)
8. 소프라니노색소폰 독주 (두 번째 선율)
9. 호른, 피콜로 한 쌍, 첼레스타 (첫 번째 선율)
10. 오보에, 오보에 다모레, 코랑글레, 클라리넷 한 쌍 (첫 번째 선율)
11. 트롬본 독주 (두 번째 선율)
12. 바순족을 제외한 모든 목관악기 (두 번째 선율)
13. 피콜로, 플루트 한 쌍, 오보에 한 쌍, 클라리넷 한 쌍, 제1바이올린 (첫 번째 선율)
14. 위의 악기들에 코랑글레, 테너색소폰과 제2바이올린 추가 (첫 번째 선율)
15. 클라리넷족과 바순족을 제외한 모든 목관악기, 트럼펫, 제1+2바이올린 (두 번째 선율)
16. 바순족과 소프라니노색소폰을 제외한 모든 목관악기, 트롬본, 콘트라베이스를 제외한 모든 현악기 (두 번째 선율)
17. 피콜로, 플루트 한 쌍, 피콜로트럼펫, 트럼펫 세 대, 소프라니노색소폰과 테너색소폰, 제1바이올린 (첫 번째 선율)
18. 위의 악기들에 트롬본 추가 (두 번째 선율. 여기서 갑자기 E장조로 조옮김, 다시 본래 조성인 C장조로 돌아온다.)

스페인 볼레로리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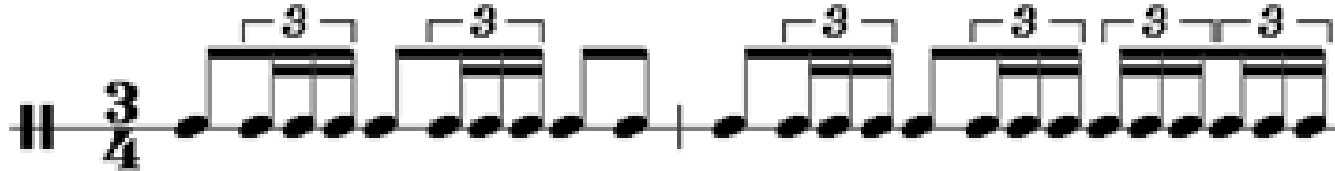
라벨의 볼레로리듬

1박 2박 3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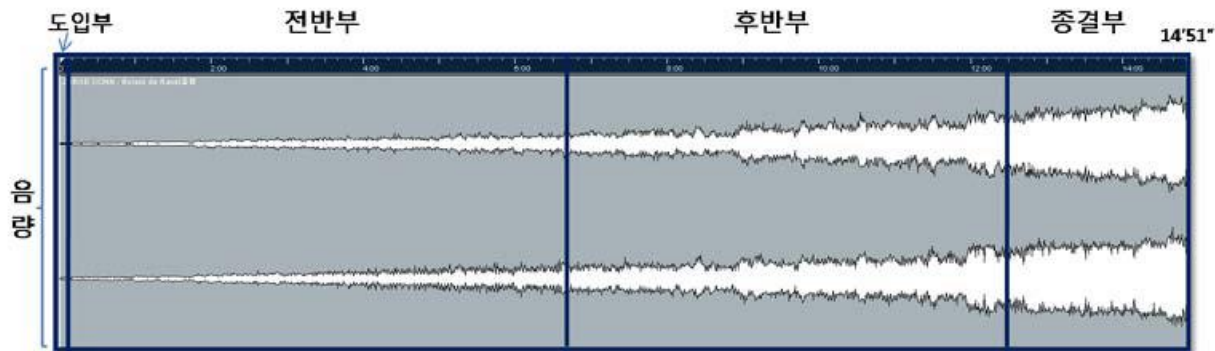
1박 2박 3박 1박 2박 3박

악보 1. 스페인의 볼레로리듬과 라벨의 볼레로리듬

볼레로 구성과 다이내믹 크레센도



- 전곡을 통해 <볼레로>의 리듬은 두 마디 단위로 반복.
- 이 리듬은 마지막 두 마디를 제외하고 총 169회 반복
- 3박 계통 스페인 민속 볼레로 리듬을 토대로 셋잇단음표를 반복하며 세련미와 섬세함을 가미.
- <악보 1>에서처럼 스페인 볼레로 리듬은 한 마디 단위로 구성되며, 3박자 중 제1박에 셋잇단음표 사용, 라벨의 볼레로 리듬은 제2박, 제3박 리듬까지 분할



볼레로 오케스트라 구성

- [1]부(75마디까지) 피콜로/플루트 2(2번 주자 피콜로 겸함)
 - 오보에 2(2번 주자는 A조 악기 오보에 다모레를 겸함)
 - 코랑글레/클라리넷 2(2번 주자는 피콜로 클라리넷 겸함)
 - 베이스클라리넷/색소폰 2(1번 주자는 소프라노색소폰을, 2번 주자는 테너색소폰과 소프라노색소폰 연주) (not a usual inclusion in the orchestra but Ravel was a jazz fan)
 - 바순 2/콘트라바순/호른 4/피콜로트럼펫/트럼펫 3/트롬본 3
 - 튜바/팀파니/스네어드럼 2(2번 주자는 17번째 반복에서 가세)
- [2]부 베이스드럼/심벌즈/탐탐/하프/첼레스타/현 5부(제1바이올린/제2바이올린/비올라/첼로/콘트라베이스).

오케스트라 구성

악기군	악기 이름 및 규모
목관악기	플루트 2개 + 소 플루트 1개
	오보에 2개 + 코르앙글레 1개
	클라리넷 2개 + 소 클라리넷 1개
	바순 2개 + 콘트라바순 1개
금관악기	호른 4개
	트럼펫 3개
	트롬본 3개
	튜바 1개
	색소폰 2개
타악기	팀파니 3개
	2개
	심벌즈
	탐탐
건반악기	첼레스타
현악기	하프
	제1바이올린 그룹
	제2바이올린 그룹
	비올라 그룹
	첼로 그룹
	콘트라베이스 그룹

첫째, 전개 방식이 단순하고 간결하다. 도입부와 종결부를 갖는 2부 구조로써 구성이 간단하고, 선율과 리듬은 변형이나 장식 없이 기본 패턴을 유지, 다이내믹에 있어서도 단순한 크레센도 기법만 사용.

둘째, 춤곡 리듬을 사용하였다. 이 리듬은 스페인 볼레로리듬을 세련되게 변형, 재구성한 것이다. 춤곡 리듬의 규칙성, 특히 셋잇단음표를 강조함으로써 더욱 리드미컬한 느낌의 바운스(튀기는 듯구르기), 음악과 움직임의 리듬이 일치.

셋째, 이국적 분위기, 신비감이 도는 선율을 사용. 제1선율은 스페인의 색채를 담은 장조성의 선율이고, 제2선율은 중세 선법과 아라비아음계를 혼합하여 만든 선율, 선율 모두 인상주의적 색채 강조.

미니멀리즘의 극치

넷째, 반복적이다. 계속되는 반복은 미니멀 음악의 기본 원리이기도 하며 무용음악으로 활용할 경우 편집 및 재구성이 용이하다. 이 곡의 선율은 총 18회, 볼레로리듬은 169회 반복되었다. 이 리듬은 처음부터 끝까지 작은북에 의해 집요하게 연주되기 때문에 원시성과 반복성을 더욱 강하게 느낄 수 있다.

다섯째, 음색에 의한 색채감이 뛰어나다. 선율, 리듬은 변형, 발전되지 않고, 악기배열과 악기종류에 의한 음색은 선율이 반복될 때 마다 다채롭게 연출. 음악의 색채감은 다양한 방법으로 안무를 시도할 수 있도록 창의적 아이디어 제공. 베자르는 연주되는 악기의 숫자와 관련하여 군무의 무용수 숫자를 결부시켰고, 음색과 관련하여 금관, 타악기의 강한 음색에서는 회전, 점프 등 강한 움직임을 창조.

여섯째, 화려한 파이널. 곡의 끝부분에서 폭발적인 에너지 분출. <볼레로>는 곡의 후반부로 갈수록 과격하고 드라마틱하기 때문에 무용수들이 에너지를 집중시켜 인상적인 끝맺음 가능.

발레리 게르기예프



1936년 모스크바의 발레 댄서 - Rudolf Nureyev (소련, 발레리나, 1961 망명)



1939년 뉴욕의 재즈 뮤지션 - Glenn Miller (미국, Jazz Trombonis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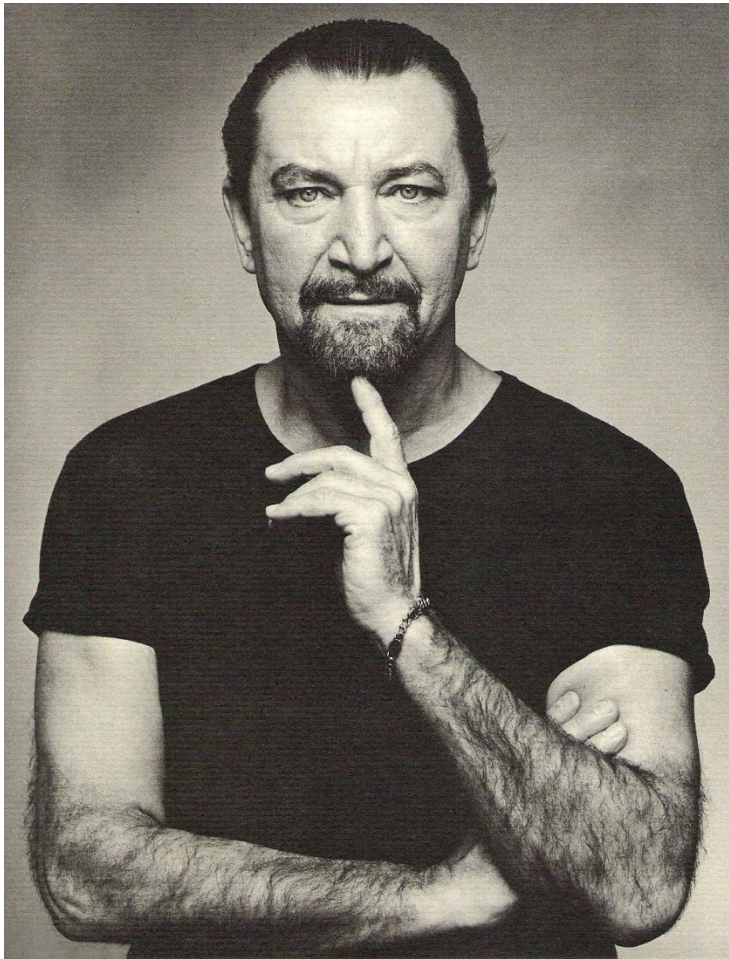
1937년 빠리의 음악가 - Edith Piaf (프랑스, 샹송가수)



1938년 베를린의 오케스트라 지휘자 - Herbert von Karajan (오스트리아)



발레의 혁명가 모리스 베자르



조르주 돈, 모리스 베자르의 연인



영화 노다메 칸타빌레의 한 장면



마이야 플리세츠키야 Maya Plisetskaya



발레 전설, 롤랑 프티|Roland Petit

- "반 세기 전에 만들어진 '젊은이와 죽음'이 현재의 발레들보다 더 현대적",
- "클래식은 기본이고 그 위에서 새로운 작품들이 탄생하는 것"



자랑스런 고대 아티스트 당당한 김연아의 볼레로



볼레로의 현대성

결론적으로 라벨의 <볼레로>는 리듬, 선율, 다이내믹, 악기구성의 네 가지 요소만으로 집요하게 반복, 중독성 강하고, 다채로운 관현악 음색과 화려한 끝맺음으로 무용의 효과를 상승시키는 탁월한 무용음악.

안무의 다양한 실험적 구성 가능하게 하는 현대성의 음악.